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상기하자 4월의 분노를

전 종 득

(회원, 경희대 교수)

1960년 4월은 3.15 부정선거와 이승만 정권의 독재부패의 타도를 외치며 일어난 우리 학생들의 정의가 승리한 달이며, 우리 사회에 큰 변혁을 일으킨 달이다.

4월 19일, 나는 내무부 앞 시위대와 합류하여 데모를 한참 진행 중이었는데, 마구 쏘아대는 총알을 피해 가며 부상당한 학생을 택시를 잡아 친구 몇몇과 함께 이송하는 일을 도와주고 그 다음날 달성으로 내려갔다. 친구 백홍기(당시 대구대 약학과 3년) 등과 의논하여 현풍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데모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낙동강변 ‘물문’이라는 곳에는 대나무밭이 울창하다. 어린 시절 이곳에서 대나무를 꺾어 낚시를 하곤 하였다. 플래카드 및 기타 준비물인 대나무를 구하기 위하여 백군과 함께 그곳으로 가는 중이었다. 마주 보고서야 겨우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이른 새벽이었다. 자전거를 탄 어느 분이 빠른 속도로 우리 앞을 가로막더니 다짜고 짜 “자네들, 오늘 우리를 죽이려 하나”며 고함을 쳤다. 나는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사람을 왜 죽여요? 우리는 단지 부정선거와 부패타도를 외칠 뿐이니 우리의 뜻과 기를 꺾지 말라”고 하며 앞으로 나갔다. “자네들 손에 든 것이 낫이 아닌가? 그것으로 우리를 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면서 욕박질렀다. 나는 웃으면서 “낫은 대나무를 꺾어 플래카드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죄 없는 사람을 죽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사하겠습니까? 말도 안돼요. 기본적으로 평화로운 데모를 할 터이니 그렇게 아시오. 만일 물리적으로 막으면 불상사가 일어날 것이고, 서로 다 아는 동네에서 서로 피해가 많을 테니 평화적 데모를 보장하십시오. 지금 돌아가셔서 경찰서장님께 그렇게 전하십시오. 그렇다고 데모를 취소하지는 않습니다”라며 손에 든 낫을 휘두르며 낙동강 물문의 대나무밭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구한 대나무로 플래카드를 만들고 준비물이 완료되었다.

학교 교무회의가 열리는 시간을 틈타 교장, 교감 및 선생님께 조용히 우리의 계

획을 전하며 1교시부터 데모를 할 것이라고 양해를 구하였다. 나의 모교인지라 선생님께서 무언으로 허락하였다.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집합시킨 후 가두행진을 시작하였다. 이에 많은 시민도 동참하였고 학생들도 신이 나서 구호들을 외쳤다. 달성경찰서에 모인 학생들은 ‘이승만은 물러가라!’ ‘부정선거 다시 하라!’ ‘경찰서장은 나와서 부정선거 해명하라!’ 등의 구호를 오전 내내 외쳐댔다.

나는 경찰서장실로 달려갔다. 서장은 우선 시원한 사이다나 한 잔 들라고 권하였다.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보냐고 따졌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하고는 학생들 앞에서 난처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곧 정년퇴직 한다면서 명예롭게 끝을 맺고 싶다는 뜻을 받아들여 서장실에 나와 다시 시내로 향하면서 ‘부정선거 다시 하라!’ ‘이승만은 물러가라!’를 외치며 학교로 향하였다. 이 날이 4월 26일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후 하야하고 말았다.

이날 데모는 대구를 제외한 경북지역에서는 최초의 지방 학생 데모였다. 그 당시의 중고생들이 성장하여 지역사회의 일꾼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 분들은 그 당시 쫓겨난 것에 대하여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날의 분노를 되새기며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은 그때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

그 당시 자전거를 타고 우리의 앞길을 막던 형사와 경찰서장 모두 우리의 선량한 형님이며 선생님이다. 그분들을 만나보고 싶은 심정은 왜일까? 따뜻한 정이 있고 소박하던 그때가 좋았기 때문일까? 4월의 그날을 다시 생각해 본다.

사월혁명회보 제48호(1997.4)